

# 北漢山을 韓国的



서울 도심에서 불과 30분 거리에 있는 北漢山이 15번째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83년 4월이었다. 이에 앞서 67년 12월에 智異山이 국립공원 1호로 지정되었고 84년 6월에 月岳山, 雉岳山이 16, 17호로 지정되는 동안 18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나의 소견으로는 바람직한 국립공원의 상을 별로 보지 못하였다. 하기가 우리사회에 「보릿고개」가 있었을 때에는 국립공원 따위가 사회 여론의 대상이 될 수도 없었으나 국립공원에 관계되는 계획이 나올 때마다 우리 사회는 대체적으로 보아 반대의 기세가 높은 가운데 근 20년의 세월을 보내왔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립공원의 현실은 어떠한가. 雪岳山 大靑峰에는 정초의 해맞이 인파가 수백명씩 모이고 등산로 폭은 넓어만 가는데, 물, 화장실, 산장, 탐방자 안내소같은 기본시설은 명목에 불과하니 사람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쓰레기와 오물투성이가 되고 있고 방치된 자연은 사람들의 무분별한 접근으로 훼손만 되어가고 있다.

지난 10월에 北漢山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부터 나의 주장은 「현 추세의 연장 선상」에서 탈피하여 北漢山만은 수도 서울에 있는 잇점을 살려 최대로 인파의 흐름을 국지적으로 흡인하여

순환속도를 높여줌으로서 남녀노소 모든 시민이 자연을 찾아 함께 즐길 수 있는, 보존과 이용이 잘 조화된 「한국적 국립공원의 모형」을 만들어 보자고 했다.

여기에는 제도적인 연구·검토와 투자재원 그리고 국립공원을 찾는 사람들의 의식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꾸어 져야 하겠지만 1인당 GNP 2천불을 바라보면서 그동안의 도시화, 산업화로 국립공원을 찾는 입장객이 17.37%씩 증가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추세에 비추어볼 때 「자연은 사람의 손이 닿으면 파괴된다.」는 원론에서 맴도는 접근수단은 너무나 고식적이고 자칫하면 과거를 반복할 우려마저 있다.

자연은 인간이 이용하기 위하여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또한 자연이 파괴되면 인간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생태계의 원리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캐나다보다 더욱 더 연구·노력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국립공원은 인간이 자연에 回歸하여 조용히 대화하는 곳이고, 내일의 활동을 위한 확대재생산의 에너지를 축적하는 터전이 되어야 한다.

연구분야에서도 미시적인 전문성을 살리되 큰 테두리를 정할 때에는 다른 분야의 사회적 변수

# 国立公園의 모델로

文 莊 寅

韓國国立公園協會 부회장

들을 종합, 감안하는 거시적 접근방법을 써서 막을것은 엄격히 막고 개발할 것은 속 시원히 터서 늘어만가는 자연을 찾는 사회적 수요를 수용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겠다.

北漢山 개발계획 안의 내용을 대한 나의 생각은 깔딱고개의 퀘도차는 찬성할 수 없으며, 케이블카 노선은 北漢·道峰을 연결시키지 말고 道峰·松湫선을 검토해 봄직하다. 말하자면「集積속의 분산」의 원리를 미리 고려하자는 것이다.

등산로의 계단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사람마다 步幅이 다르고 또 배낭 무게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계단이 아닌 시설을 해야한다. 야영장. 진디공원에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하고 화장실은 지상보다 지하에 돈을 더 많이 넣어야 한다.

곳곳에 탐방자 안내소와 그 산의 동식물 표본 사적등을 볼 수 있는 전시관이 필요하다. 돈 쓰는 이야기만 해서 미안하지만 그래야만 막을 것을 막을 수 있고 자연보호가 되는 국립공원의 모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의 분발을 바라마지 않는다. 생각해 보면 고속도로가 없고 도로포장이 안되었다고 하면 아마도 국립공원이 지금처럼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60년대말, 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할 때에는 우리사회에는 반대여론이 더 높았던 것이다. 기억된다. 이제는 과거 20년간의 국립공원 관리운영의 흐름을 止揚하고 중지를 모아 과감하게 재원을 투입할 때다. 고속도로가 우리 국토의 대동맥이라면 국립공원은 우리국토의 腦이다. 하나 둘 죽어가는 뇌세포를 값비싼 약을 써서라도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83년 9월 아스타 서울총회때는 「훌륭한 한국의 자연미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코스과 시설 개발이 선행 돼야 한다」 는 의견들이 많았고 일본에서는 벌써부터 「올림픽은 서울에서, 관광은 일본에서」 를 표방하면서 야단법석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외채의 반이상이 일본에서 사온 물건값으로 지불되었다는 이 마당에 또 우리는 고생만 하고 단맛은 일본이 보아야 하겠는가. 국민 모두가 다시한번 생각해볼 문제이다. 인간은 분명히 자연의 한 부분이며 적극적 자연보호의 수단으로써 국립공원은 개발되어야한다. 82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열렸던 제 3회 세계국립공원대회의 (10년마다 개최) 캐치프레이즈는 「PA-RK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였음을 부기한다.